

# 한민족은 구세주가 출현할 천손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래 사진의 와당은 승리자 조희성님께서 단상에서 “박물관에 가면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이 있으니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고고학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와당의 비밀을 밝혀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드러내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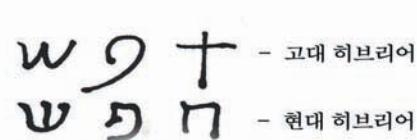
&lt;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gt;



- 시대 : 고조선
- 출토 지역 : 평양 대동강 유역
- 전시실 : 국립 중앙박물관
- 유물번호 : 정내 211번 (구 186번)

이 와당은 일본의 이우치 이사오 선생님께서 1987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유물 1,082점 중 하나이다. 이우치 이사오 선생님께서 이런 시절에 고대 한국의 기와와 벽돌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평생동안 60여 차례 한국을 오가며 직접 수집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히브리어 해석 풀이



- 고대 히브리어

- 현대 히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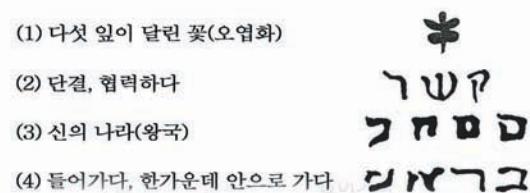
도착했다

&lt;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gt;



- 시대 : 고조선
- 출토 지역 : 평양 대동강 유역
- 전시실 : 국립 광주박물관
- 유물번호 : 본 844 (구 215번)

히브리어 해석 풀이

(1) 다섯 잎이 달린 꽃(오엽화)  
(2) 단결, 협력하다  
(3) 신의 나라(왕국)  
(4) 들어가다, 한 가운데 안으로 가다

오엽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lt;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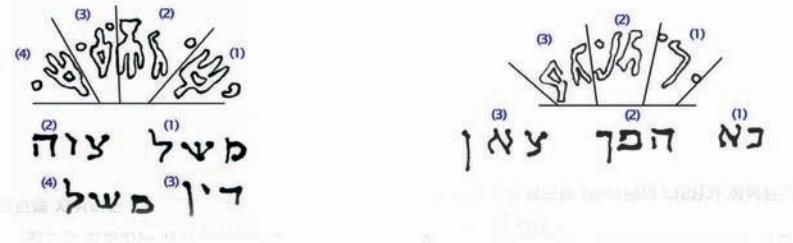


- 시대 : 고조선
- 출토 지역 : 평양 대동강 유역 (현 평남 대동군 임원면 상오리)
- 전시실 : 국립 중앙박물관
- 유물번호 : 경내 124번 (구 226번)
- 고대 히브리어 문양의 뜻 : 와당 원쪽 히브리어 –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와당 오른쪽 히브리어 –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 해석자 : 고 신사운 박사(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히브리어 전문가)

히브리어 해석 풀이

&lt; left side of the tile&gt;

&lt; right side of the tile&gt;



·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증거는 우리의 풍습과 이스라엘의 풍습이 같은 점과 평양주변에서 출토된 와당 속에 히브리어가 적혀 있다는 것이다.

· 그리고 그 뜻이 ‘도착했다’ ‘오엽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이다.

· 이 와당은 이긴자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평양에서 출토된 기왓장이 있을 것이다. 사진을 찍어 서울 대학교 신사운 박사에게 히브리어를 해석해서 받아 오라’고 하셔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린스타인 교수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와당 속의 글자가 히브리어란 것을 고대 히브리어 전문가 ‘바이일란 대학교’의 ‘그린스타인 교수’로부터 확인받았다.



故 유기천 박사(전 서울대 총장, 세계적 형법학자)

저명한 형법학자 고(故) 유기천 박사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언어 사이에 나타난 광범위한 공통점 29가지 사례를 기록하였다. 다음은 그 중 대표적인 것이다. 아바(Abba)라는 히브리어와 한글의 아빠(daddy)가 같은 의미이다. 신랑을 신부의 집에 데려가기 위하여 가마가 사용되었다. 삼베옷을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입었다. 그리고 죽음 이후 7일간의 애도기간을 가졌다.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도장을 사용하고, 흰옷을 즐겨 입고, 결혼 풍습 중에 중매쟁이가 있다 등이다.

##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 풍습이 유사한 점

- 1) 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다는 점과 제물로 양 또는 송아지를 바친다는 점.
- 2) 상중에 향을 피우고 상주들이 베옷을 입고 곡을 한다는 점
- 3) 동짓날 팔죽을 먹고 문설주에 발랐다는 점.
- 4) 우리 한민족을 백의민족이라 하는데 이스라엘인도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사실.
- 5) 매운 음식을 즐겨먹고 부추를 먹는다.
- 6) 맷돌을 사용하고 농기구로 삽, 팽이, 보습, 쟁기, 도리깨를 사용한다.
- 7) 한국인과 이스라엘인의 골격구조와 골상이 똑같다. (동아 대백과 사전) 키가 작고 검은 머리털을 가졌다.
- 8) 한국어에 고대 히브리어가 발음과 뜻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아빠’ ‘애기’ ‘애비’ ‘에미’ ‘실로’ ‘고수레’ ‘꼭두각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